

고공행진 휘발유값 상승세 어디까지...

광주·전남 10주 연속 오르며 1400원 선 돌파 유류세 인하폭 축소·국제유가 올라 추가 상승 불가피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오르며 1400원 선을 돌파했다. 앞으로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국가 유류가 상승까지 겹치는 등 유가 상승 요인이 한꺼번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주유소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광주 1403원, 전남 1404원으로, 전 주보다 각각 10원과 11원 오르며 올들어 처음으로 1400원대를 넘어섰다.

광주(1328원)·전남(1340원)은 지난 2월 3일 최저점을 찍은 뒤 날마다 올라 10주 연속 가격을 끌어올렸다.

경유 가격은 광주 1296원, 전남 1299원으로 전 주(1288원, 1291원)보다 올라

1300원대를 넘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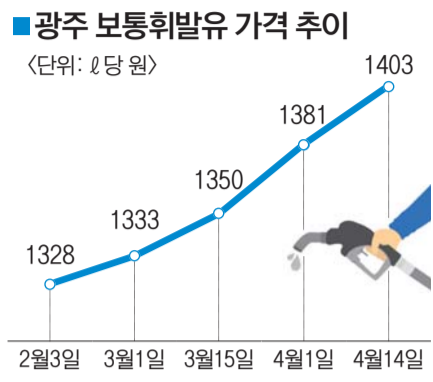
반면 지난 9일 1당 733원이던 광주 LPG가격은 연속 내리며 731원에 거래됐다. 전남은 광주보다 52원이 비싼 1당 785원이다.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당 10.3원 오른 1408.3원이었다.

보통휘발유 가격은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8.5원 오른 1304.3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상당기간 유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절반 가량 축소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1당 65원)·경유(1당 46원)·LPG 부탄(1당 16원) 모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2월 첫째 주(1328원)와 비교할 때 두 달 사이에 75원이 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

돼 기름값이 추가로 오르면 소비자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도 기름값 상승요인은 집중돼 있다. 일일 기준 지난해 12월 배럴당 50달러 아래(49.52달러)로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7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미국의 대(對)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잠재적 유가 상승요인이다. 여기에 하루 평균 약 1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이달 초부터 내전이 발생한 점과 주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정전 상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를 급등시킬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3월 석유수출기구(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와 미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제재 등으로 상승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은행 상반기 1200명 뽑는다

광주은행 하반기 60명 채용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과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공채 규모는 최소 1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수준이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공기업과 5대 시중은행 중 8곳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거나 윤곽을 잡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금융공기업과 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다.

이들이 현재까지 밝힌 채용 규모는 1209명 이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1174명보다 조금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일정 인원을 선발했던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직 상반기 채용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채용 진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았던 KEB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인원이 미정이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71명을 뽑았던 KB국민은행은 올해도 일정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채용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 상반기에 360명 채용을 완료한 상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올해 하반기 6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표적인 양질 일자리인 금융권에 채용을 독려하는 데다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에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명예퇴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한 만큼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공기업은 보수와 재직기간 등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에게 최선호직장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원으로, 같은 시점 361개 전체 공공기관(부של기관 포함) 직원의 평균 보수인 6707만원보다 38.8% 많았다.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은 대개 9000만원대에서 직원 평균 급여가 형성된 가운데 1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금융지주사는 직원 평균급여가 1억3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대우가 좋다 보니 인원을 적게 뽑는 금융공기업에선 100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곳이 종종 나온다.

2017년 채용 비리 여파로 은행·금융공기업의 채용 전형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격하다.

학교명과 학업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지원서에서 아예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고 채용 과정 상당 부분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 오디오 하만 글로벌 무선스피커 시장 4년 연속 선두자리 유지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인수한 전장·오디오 전문업체인 하만(Harman)이 글로벌 무선스피커 시장에서 4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 컨설팅'에 따르면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JBL과 하만카톤은 지난해 전세계 무선스피커 시장에서 수량 기준으로 35.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로써 하만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이어가며 업계 '리딩 브랜드'임을 재확인했다.

하만의 대표 제품은 라이트소스와 360도 사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JBL '펄스 3'을 비롯해 진공관 디자인의 하만카톤 '오라 스튜디오 2', 독특한 디자인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오닉스 스튜디오 5' 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타필드 하남에 프리미엄 사운드 전용 체험관인 '하만 스튜디오'를 설치한 데 이어 수도권 주요 지역 9곳에 '하만 청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하만 제품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1인 방송 트렌드에 주목해 한국 시장에 특화된 '1인 라이브 패키지'를 출시했다.

/연합뉴스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이 글로벌 무선 스피커 시장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다. 하만은 60년 이상 축적한 음향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으로 무선 스피커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무역협회 '동남아 시장 개척단' 19일까지 모집

한국무역협회와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업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급성장 중인 동남아 시장의 현지바이어와 유통업체 등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적극 지원한다.

개척단 활동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베트남(호찌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에서 오는 6월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추진된다.

참가 자격은 지난해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광주 소재 중소기업이다. 연간 3회 이상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에 참가한 기업과 광주시 일자리우수 인증기업, 명품강소

기업 인증기업은 참가가 제한된다.

무역협회와 광주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현장 실사와 수출역량평가 등을 거쳐 참가업체를 최종 10개사 내외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업체에는 현지 시장 제품 시장성 평가와 현지 바이어 발굴·상담, 통역비용 전액을 비롯해 왕복항공료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062-943-9400, http://gj.kita.net/)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고속도 백양사휴게소 수소충전소 6월 오픈

고속도 6곳 추가 구축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 수소충전소를 연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일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를 공식 오픈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다. 서울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2곳은 현대자동차가 구축했다.

이들 휴게소에는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kg/h의 충전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장성군)와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경남 함안군) 등 6곳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들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복합환승센터, 버스 차고지 등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오는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정부 합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이 광산진곡과 동곡 2곳에 튜브트레이더 방식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5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0 25 31 32 36 43	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421,706,750	6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7,766,063	44
3 5개 숫자일치	1,834,696	1,865
4 4개 숫자일치	50,000	99,152
5 3개 숫자일치	5,000	1,716,083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분양지역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